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에스라-느헤미야, 세션 9, 느헤미야 7-8

© 2024 티베리우스 라타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9회기 느헤미야 7-8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 열려 있습니다. 처음 다섯 구절은 느헤미야가 일을 위임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매 **2**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채 관리인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사람보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동안에 문을 닫고 빗장을 쳐라.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경비병을 세우되, 어떤 사람은 자기 초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두게 하라.” **4** 그 성은 넓고 크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적고 집도 다시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5 그러자 나의 하나님이 귀인과 방백과 백성을 모아 족보에 등록할 뜻을 내 마음에 두셨느니라.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족보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문지기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들은 고대 경비원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책임은 아니었지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아마도 이 역할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비상 조치일 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실제 일상적인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일의 일부를 위임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상황을 그에게 알린 소위 형제라고 불리는 느헤미야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는 두 번이나 나의 형제라고 불리며 일부 학자들은 그가 실제로 그의 육체적 형제이자 피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는 단지 동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성의 총독이었으므로 그 성을 지키는 일을 감독하는 데 더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일을 위임하는 리더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의 처음 다섯 구절은 또한 예루살렘에 아직 사람들이 완전히 다시 거주하지 않았으며 집들이 재건되지 않았음을 알려 줍니다. 사람들이 언제 돌아올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그들은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싶어합니까, 아니면 시골에 살고 싶어합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농작물을 심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골에 살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살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다시 사람을 거주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에 따라 느헤미야가 발견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7장 6절부터 끝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록은 에스라 2장의 목록과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논평에는 그러한 차이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과 함께 두 목록의 목록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의 추방 물결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재건축과 재개발의 세 가지 물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필요한 영적 회복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모두 육적 회복과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8장부터 시작하여 도시의 일종의 물리적 회복을 보았다면 실제로는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서 느헤미야 시대의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7장 55절에 귀환자 명단에 언급된 데마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은 제단 앞에서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두 남자와 그 아래에 데마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느헤미야 시대 귀환자 명단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적힌 이 인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인봉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이제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의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끝나게 됩니다.

포로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다른 부분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성전이 없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회당이 탄생한 것도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자 전 세계에 회당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회당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성경이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8장 1절 1절부터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2** 그리하여 제사장 에스라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율법책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들은 모든 회중 앞으로 가져왔더라. **3** 그리고 그는 수문 앞 광장을 바라보며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읽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4** 그리고 서기관 에스라는 그들이 그 목적을 위해 만든 나무 단 위에 섰습니다. 그 곁에는 오른쪽에 맛디다, 스마, 아나야, 우리아, 힐기야,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에 브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밧다나, 스가랴, 므술람이 섰다.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책을 펴니 그가 모든 백성 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그것을 읽고 꽤 오랫동안 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모세의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명기입니까? 처음 5권인가요?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도 율법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오늘날 일부 문화권에서 여전히 실천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선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 가보면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교회의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축복은 말씀 낭독을 마치고 백성들의 반응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반응은 목소리가 컸고, 겸손했으며, 경건했습니다. 그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손을 들고 경배하면서 실제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실, 예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누군가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배할 때 예배하는 분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은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8절에 언급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율법을 깨닫게 하는 동안 백성들은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사람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13명의 레위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 이름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모세는 죽기 전에 레위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0절은 레위인이 야곱에게 주의 규례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시대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어떤 레위 사람들이 순회 교사가 되어 유다 모든 성읍을 순회하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역대하 17:7-9. 그래서 이것은 단지 큰 모임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신자 공동체의 삶에 중요하고 필요하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말씀을 읽고, 신실한 사람은 말씀을 설명하고, 그러면 신실한 사람은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9절부터 시작합니다.

9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의 성일이라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동시대인이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포도주를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 날은 여호와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오늘이 거룩한 날이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을 모두 진정시켰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니 이는 자기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깨달음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새 생명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칼처럼 깊게 베인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단지 그들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결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의 회개를 방해하려 하지 않았지만, 슬픔 뒤에는 기쁨이 뒤따라야 합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백성의 힘입니다. 한 학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기쁨이

그들이 여호와와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거나 보호받을 것이라는 희망의 기초가 된다고 단언합니다.

여호와와의 기쁨은 그들이 율법을 무시한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기초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뻐할 때 무엇을 합니까? 글썄, 그들은 먹고 마신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내적 상태의 외적 표현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성일은 실제로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서 안식일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 날이 여호와께 성일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Warren Wiersbe가 이 구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약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는 확신이 있고, 정결케 되고, 축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충실한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13절, **13절** 부터

둘째 날에는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였다. **14**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을 발견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15**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여 그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기록된 대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도금양나무와 종려나무와 그 밖의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게 하라 하였느니라. **16** 이에 백성이 나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각각 자기 지붕 위에와 뜰과 하나님의 전 뜰과 수문 광장과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만들었으니. **1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모든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하니 눈의 아들 예수아 때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을 짓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매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18** 그리고 그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들은 칠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깊이 있는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장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을 읽으면서 초막절에 관한 법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티쉬리월 15일에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주요 감사절임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34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 축제는 농사년을 마감하고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념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천막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것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전히 일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이 행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난 후 처음으로 온 곳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왕정 시대인 역대하 8장에서도 지켜졌습니다. 그것은 포로기 이후에도 지켜졌습니다.

에스라 3장, 스가랴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한 유일한 절기였습니다. 여기서도 기쁨의 주제는 당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분명히 무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자르는 칼과 같으나 그들의 삶에 살아 있고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저는 워렌 위어스비(Warren Wiersbe)의 통찰력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지 않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 중에 기쁨을 주신다는 말을 인용합니다. 대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율법, 사람들이 지켰고,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는 다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의 백성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책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며, 말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감사하며,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 결과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임을 기억하십시오. 너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9회기 느헤미야 7-8장입니다.